

# 美, 이란 해상 봉쇄...호르무즈 일촉즉발

중부사령부 “이란 항구 아닌곳  
오가는 선박 항행자유 방해안해”  
이란 반발...휴전 합의 중대 기로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다’ 12일(현지시간) 테헤란 혁명광장에서 한 여성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다’고 적힌 대형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지난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선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온 이란에 맞서, 이란의 원유 등 수출을 차단하는 역(逆) 봉쇄에 나서며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1시간에 걸친 양국 간 첫 종전 협상(파키스탄·현지시간 11-12일)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결렬된 가운데 휴전 이후 양측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는 모습이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나온 첫 메시지였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조치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란이 전쟁 기간 자국산 원유 수출과 해협 통행료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온 점을 겨냥, 주요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남은 휴전 기간 이란의 자금줄을 조여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유도하

는 한편, 종전협상 구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란이 그간 호르무즈 봉쇄 위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흐름을 차단하고, 오히려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확보해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중부사령부는 다만 “이란 항구 외의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대해선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과 거래하지 않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선 해협 통과를 허용함으로써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란 이외의 제3국을 오가는 선박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보인다.

중부사령부는 봉쇄 조치 시작 전에 상선 선원들에게 추가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만만 및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가는 모든 선원에게 운항 시 ‘선원 공지’ 방송을 주시하고 교신채널을 통해 미해군과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란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도하면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이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면서 “적들이 단 한번이라도 오만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또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미-이란 간 휴전 합의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미군과 이란군이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하게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네덜란드 승인받아...유럽 최초

네덜란드가 유럽 최초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 사용을 허가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CBS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자동차 규제당국인 RDW는 약 18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테슬라 감독형 FSD 사용을 허가했다.

감독형 FSD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보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이 차량의 제동, 가속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RDW는 성명을 내고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은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테슬라 FSD 기능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나머지 유럽연합(EU)에서도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DW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위원회 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EU 전역에서도 FSD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안데스 고원서 울린 K팝

볼리비아서 ‘K이니셔티브’ 개최

주볼리비아대사관은 최근 라파스의 대형 쇼룸 ‘메가센터’에서 한국 문화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접목한 ‘K-이니셔티브’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라파스는 해발 3천200~4천m에 위치한 볼리비아의 수도다.

대사관은 행사장 내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존’을 조성해 현지인들에게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전통 놀이를 즐기며 한국의 맛을 체험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방탄소년단(BTS) 팬덤과 함께한 ‘K팝 랜덤 플레이 댄스’였다. 현지 청소년들은 BTS를 비롯한 주요 K팝 그룹의 고난도 군무를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볼리비아 사무소는 별도 부스를 통해 보건, 교육, 농촌 개발 등 현지에서 추진 중인 개발 협력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장 주볼리비아 대사는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볼리비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매력적인 문화 자산과 ‘K-이니셔티브’를 통해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 지자체 ‘민원창구 운영시간 단축’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일하는 방식 개혁’에 맞춰 민원 창구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키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정사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그 결과 약 1억3천만엔(약 1억2천만엔)이었던 연간 시간외근무수당 중앙 1천만엔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일부 지자체의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 문제가 지적된다. /연합뉴스

## 중휴머노이드, 단거리 달리기 초속 10m 넘어...‘우사인 볼트급’

중국이 로봇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최근 한 업체의 휴머노이드가 단거리 달리기에서 초속 10m가 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오는 19일 베이징에서 열릴 로봇하프마라톤 대회에 100여개 팀이 출전, 장거리 달리기 능력을 겨룰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중국 로봇업체 유니트리(위수커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난 11일 자사 HI 모델이 육상경기장 트랙을 달리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시(휴머노이드 달리기 속도) 세계 기록을 깰다”고 밝혔다.

영상 속 측정 장비에는 초속 10.1m가 찍혔

다. 우사인 볼트가 2009년 100m 달리기 세계 기록(9초58)을 세웠을 당시 속도는 초속 10.44m 정도였다.

유니트리는 “측정 장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 속도는 초속 10m 정도”라면서 다리 길이 80cm에 무게 62kg으로, 일반인과 비슷한 체형인 휴머노이드가 세계 챔피언의 속도로 달렸다고 소개했다.

유니트리 측은 이번 속도 측정을 위해 머리와 손 부위를 얇게 무게와 공기 저항을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유니트리 왕싱싱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안에 휴머노이드의 100m 달리기 기록이 볼트의 세계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달리기 속도는 휴머노이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난해 열렸던 세계 휴머노이드 운동회 100m 경주에서는 다른 업체가 만든 ‘텐궁 울트라’가 2.15초로 우승한 바 있다.

중국 로봇기업들은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